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팀 응원하고 우대금리 받아요”

은행·카드사, 스포츠 특화 상품
신한은행 ‘SOL KBO 리그 적금’
응원팀 성적 따라 우대금리 적용
BNK부산-롯데, 광주-기아 등
지역 연고지 팀 응원상품 판매

프로야구(KBO)와 프로축구(K리그)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가 인기를 끌면서 금융권에서도 스포츠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응원하는 팀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응원 예·적금’을 판매한다. 카드사들은 스포츠 경기 관람때 혜택을 제공하는 특화 카드를 선보였다. 특히 올해는 이스포츠(E-Sports) 팬을 위한 특화 상품까지 등장해 ‘우리팀 응원’의 재미를 더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프로야구(KBO) 타이틀 스폰서인 신한은행은 지난 달 28일 프로야구 시즌 개막을 맞아 응원하는 구단의 시즌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2026 신한 SOL KBO 리그 적금’을 선보였다. 지난 2024년까지 판매됐던 ‘신한 프로야구 적금’의 후속 상품으로, 응원팀의 포스



지난 3월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BO 2026 시즌 개막전에서 ki wiz와 LG트윈스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트시즌 및 한국시리즈 진출 여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자사 모바일뱅킹 앱 ‘신한 SOL’을 통해 프로야구 응원 플랫폼 ‘쏠야구 플러스’도 운영한다. 쏠야구 플러스는 KBO관련 상품 판매와 구장 방문 시 스마트 오더 기능을 제공하며, 월간 MVP 선정이나 경기 켈린더 등 프로 야구팬을 위한 기능을 다수 제공한다. 일일퀴즈, 출석체크 등에 참여해서 얻은 포인트를 적립해 관련 혜택도 교환할 수 있다.

지역 연고지 팀을 응원하는 상품도 판매된다. BNK부산은행은 올해도 롯데 타이거즈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BNK가을야구 예·적금’을 선보였고, 광주은행도 KIA 타이거즈의 성적과 연계한 금융상품인 ‘KIA 타이거즈 우승기원 예·적금’을 판매한다. NH농협은행은 NC 다이노스를 응원하는 ‘NC 다이노스 위풍당당 적금’을 새롭게 선보였다.

프로야구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카드업계도 프로야구의 응

원 열기에 동참했다.

KB국민카드는 ‘두산베이스 KB카드’를 론칭해 홈경기 관람 및 굿즈 구매에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삼성 라이온즈 삼성카드’와 ‘한화이글스 삼성카드’를 출시했고, 신한카드는 ‘LG트윈스 신한카드’와 ‘한화이글스 신한카드’를 선보였다. IBK기업은행도 ‘참! 좋은 kt wiz카드’를 출시했다.

지난 2월 개막한 프로축구(K리그)도 흥행을 지속 중인 만큼, 축구 응원 상품도 판매 중이다.

K리그의 타이틀 스폰서인 하나은행은 응원하는 팀을 선택하면 시즌 우승 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K리그 우승 적금’을 판매한다. K리그 관람 시 혜택을 제공하는 하나카드의 ‘K리그 축덕 카드’와의 연계 혜택도 제공한다. 광주은행도 광주FC 성적과 연계한 ‘광주FC 적금’을 선보였다.

이스포츠(E-Sports) 팬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도 등장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메인 파트너사인 우리은행은 지난 1일 이스포츠 응원 상품을 선보였다. 일일납입 적금 상품인 ‘우리 T-W

ON 적금’은 우리은행 모바일뱅킹 앱 ‘우리 WON뱅킹’ 내에 운영 중인 이스포츠관 이용 시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이스포츠관은 경기 예측 및 이스포츠 티켓 예매, 팬 페이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응원 플랫폼이다.

우리은행은 이스포츠 구단 T1을 응원하는 체크카드 상품인 ‘카드의정석2 T-WON 체크카드’도 특판한다. 해당 카드는 T1의 국제대회 우승 기록 및 팀 컬러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출시됐으며, 캐시백 혜택과 함께 굿즈 응모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10대 팬이 많은 이스포츠의 특성을 반영해 청소년 서비스인 ‘우리틴틴’에서도 같은 디자인의 카드를 발급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스포츠 관련 상품들도 매년 인기를 끌고 있다”라면서 “특히 최근에는 충성도가 높고 소비 활동도 활발한 스포츠 팬들의 특성을 반영해 플랫폼 이용이나 소비활동에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들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다주택자, 대출비중 낮아... 효과 제한적”

부동산 현장 르포

‘주담대 제한’ 서울 곳곳 반응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막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서울 핵심지 시장을 흔들기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 상환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팔게 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하며, 무주택자의 ‘갭투자’는 한시적으로 허용해 매물 소화를 유도한다. 정부는 올해 약 1만2000구가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다주택자를 향한 추가 규제가 매물 출회와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 사이에선 강남3구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에서 가격 조정 압력이 커질 것이라 분석이 엇갈렸다.

◆ 강남권 ‘대출 영향 제한적’

정책 발표 다음 날 찾은 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에선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곳은 다주택자의 대출 비중이 낮아 만기 연장을 금지해도 매도 압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전세 수요도 꾸준해서 굳이 집을 팔 필요가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서 “양도세 종과를 앞두고 이미 나올 매물은 상당 부분 정리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아파트 단지. /성채리 인턴기자

강남·송파, 매도로 이어지지 않고 실수요자에 매물 돌아갈 지도 미지수 집주인, 되레 세입자 전세 올릴수도 서울 외곽선 매수심리 위축 분위기

됐고 급매도 많지 않다”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외곽 지역에서나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 역시 분위기는 비슷하다. 헬리오시티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고가 주택은 애초에 대출 비중이 낮다”며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 매도보다는 버티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매물이 나오더라도 이를 받아줄 수요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5일 “무주택자에게 갭투자를 열어줘도 자금 여력이 부족하면 실제 거래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집이 정말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매물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을 안고 있는 집주인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가를 올리거나,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부담을 세입자에게 넘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외곽지역 가격 조정 vs 상승

성북구를 비롯한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매수 심리 위축이 뚜렷한 분위기다. 같은 거래 부진 상황을 두고 향후 집값 방향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수요 위축에 따른 가격 조정 가능성과 매물 잠김에 따른 상승 압력이 동시에 제기됐다.

길음역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갭투자가 막히면서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매물 공급보다 수요 감소 폭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반면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매물 감소 신호에 주목했다. 그는 “매수자는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매도자는 가격을 내리지는 않는 분위기”라며 “거래가 안 되면 매도자가 차리러 증여를 선택해 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 양도세 종과 유예 종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이 심해지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2%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강북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는데, 성북구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 0.27%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와 전월세 시장 불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북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길음뉴타운은 학군이 좋다고 소문이나 꾸준히 수요가 있다”며 “대출도 4억~6억까지 받을 수 있어서 저가 매물이 많이 나가는 편”이라고 귀띔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기름값 폭등... 카드사 ‘주유 캐시백’ 혜택

KB국민, 리터당 최대 150원 혜택
대중교통 ‘K-패스카드’ 추가 환급
신한카드, 5만원 주유시 3% 추가
내달까지 최대 2만원까지 캐시백
NH농협, 혜택 주유소 전국 확대

유가 쇼크 장기화 조짐이 계속되자 카드사들이 4~5월을 중심으로 주유 카드 혜택을 강화하고 나섰다. 주유 리터(L)당 할인액과 할인율을 높이는 한편, 카드 혜택이 적용되는 주유소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5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리터당 1946.42원이다. 전날보다 3.98원 오른 수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강력 타격을 예고하면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폭등한 영향이다. 이날 장 마감 기준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1.54달러로 11.41% 급등했다.

유가 쇼크 장기화 조짐이 이어지자, 국내 카드사들은 주유 카드 혜택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정액형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KB국민카드의 주유 특화 카드로 주유할 경우 리터당 추가 50원을 더해 최대 150원의 혜택을 지급한다. 해당 카드를 신규 발급하는 고객에게는 연회비를 100% 캐시백해 준다.

고유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 대상 혜택도 있다. 내달까지 추첨을 통해 ‘KB국민 K-패스카드’ 이용 고객 5만 명에게 K-패스 환급금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신한카드는 정률형 할인 혜택을 선보인다. 내달까지 주유 특화 카드인 ‘딤오일’과 ‘알피엠플러스 플래티늄샵’ 카드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로 5만원 이상 주유하는 고객들에게 이용 금액의 3%를 추가로 캐시백해 준다. 이달과 내달 각각 1만원 한도로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카드 신규 발급 고객에게는 발급 첫 해 한정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단, 카드 발급 후 1만원 이상 이용해야 한다.

NH농협카드는 혜택 적용 주유소 범위를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내달까지 모든 주유소에서 NH농협 개인 신용카드로 건당 3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 리터당 50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월 한도 5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바른 오일 앤드 패스카드’의 경우 전국 모든 주유소에서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원까지 5% 청구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GS칼텍스나 농협 주유소 이용 시에는 전월 실적에 따라 리터당 최대 150원의 기본 할인에 이번 프로모션 혜택이 더해져 리터당 최대 200원 수준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NH 올윈파이크드’는 전월 실적에 따라 주유비 최대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유류비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체감 혜택을 제공하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